

시민 여러분들께 ~시장 메시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2014년 2월에 시장에 취임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활기찬 가와구치 만들기」를 가능하게 하는 재정기반의 건전화를 위해 시 세금 수납율 향상 등에 노력하여, 10년 동안 시 세금 수입을 누계 742억엔 증액한 것에 더해, 일반 회계 예산을 누계 3,454억엔 증액에까지 끌어 올림으로, 3대 프로젝트를 시작해 육아·보육환경과 교육환경의 충실, 시내 경제 활성화 외, 방재 대책이나 도시 기반 정비의 추진 등, 여러가지 도시 만들기 시책에 전력을 다해, 시정을 크게 전진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핵시로의 이행에 따라 보건소를 설치한 지 불과 2년만에 팬더믹이 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는 시가 주체가 되어 의료제공체제의 확립과 우리 시 독자적인 「가와구치 모델」에 의한 백신접종 촉진 등, 효과적인 감염증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매우 영광스럽게도, 이러한 노력이 살기 좋은 도시로서 널리 인지되어 많은 분들에게 선택되어지는 도시로서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덧붙여, 올해 가와구치시는 내각부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미래 도시」 및 사이타마현 최초로 「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시범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제, 사회, 환경 등의 각 분야에 있어서 우리 시의 다각적인 노력이 높이 평가된 것이며, 미래로 지속되는

가와구치의 발전을 위해,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가 일단락되고 사회경제활동의 정상화가 진행됨에 따라 도쿄 일극 집중이 재가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가와구치시가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수도권 근교의 도시간 경쟁에서 이겨내고, 살기 좋은 도시를 넘어 한층 더 선택받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중핵시로서 품격이 있는 문화 예술의 창조 발신 거점으로서 리리아의 대규모 수리와 미술관의 정비를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와구치역에 중거리 전철 정차의 실현과 카미네종합운동공원의 정비 등, 매력이 넘치는 활기찬 가와구치의 미래에 이어지는 다양한 도시 만들기 시책에 적극적으로 임해 가겠습니다.